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보도시점 2023. 4. 17.(월) 06:00 < 4.17.(월) 석간 > 배포 2023. 4. 14.(금)

남미 리튬 부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 칠레,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 파견 -

- 우리 배터리·광물기업에 리튬·구리 등 유망 사업(프로젝트) 정보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보유국인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이하 '조사단')을 4.18.(화)~4.21.(금) 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 (조사단 구성) 한국광해광업공단, LS MnM,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포스코 홀딩스 등

최근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협의체 결성 구상 등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단 파견은 남미 자원 부국과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조사단은 리튬 세계 최대 부존국인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광업부 장관, 칠레 동위원회(Cochilco) 및 칠레 광물공사(ENAMI) 등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광물 가공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칠레의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 칠레는 리튬(매장량 세계1위, 생산량 세계2위), 구리(매장량 세계1위, 생산량 세계1위), 몰리브덴(매장량 세계4위, 생산량 세계2위) 등 다량 보유

또한 국내 수요기업과 현지 광업기업 간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광물공사(ENAMI)와 합동으로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나(4.19, 온·오프라인 동시진행)를 개최하여, 칠레 정부의 리튬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리튬, 구리 등 유망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또 다른 리튬 부국인 아르헨티나(매장량 세계3위, 생산량 세계4위)에서는 우리 기업이 리튬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살타주(州) 정부 관계자 및 에너지광업공기업(REMSA)를 면담하여,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망 리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는 리튬(매장량 세계4위, 생산량 세계3위), 은(매장량 세계11위, 생산량 세계12위), 몰리브덴(매장량 세계9위) 등 다량 보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망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부국과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양수영 (044-203-52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